

# 탈냉전기 중국의 대(對)한반도 군사외교 : 개념, 전략 및 특징

김 태 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중국 군사외교의 기본 개념      | 참고문헌     |
| III. 탈냉전기 중국 군사외교 수행 전략 | Abstract |
| IV. 대한반도 군사외교의 특징       |          |

Key words(중심용어) : 군사외교(Military Diplomacy), 지정학적 전략(Geopolitical Strategy), 안보환경 조성(Shaping security environment), 현상유지(Status quo), 안정(Stability)

## 국 문 요 약

중국은 탈 냉전기 이후 군사외교를 전통적 외교의 보완수단으로써 “외교관계의 척도”가 되는 요소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자국의 국가이익과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이행되는 중국의 군사외교활동은 비단 국방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전략을 구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중국정치 지도부에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군사외교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대 한반도 인식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보여준 외교적 수사에 따른 우리의 기대감과 중국의 실제 행동은 큰 오차가 있음이 명확해졌다. 다시 말해 중국이 스스로 “외교관계의 척도”라고 말하는 군사외교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전략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군사외교는 지정학적 전략에 기초하여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安보環境 造成), 군사 현대화(軍事現代化) 지원, 주권수호(主權守護)”라는 세 가지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외교는 자국의 경제건설에 유리한 동북아 전략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곧 현상유지(Status quo)전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우리의 군사외교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중국의 군사외교 전략을 역이용하는 대응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 I. 서론

중국에 있어 군의 역할과 위상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은 공산당의 창당초기부터 혁명전쟁과 항일전쟁기를 거쳐 ‘군’이라는 물리적 권력만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개혁개방 시대에도 이러한 ‘군’의 역할 인식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변화는 없어 보인다. 특히, 2004년 중국 국방백서는 “군사외교의 가치를 국가전략에서 전략적 수준까지 격상시킨다”고 명시하여 군사외교(軍事外交)를 중국의 국가이익과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군사교류는 전통적 외교의 보완수단으로써 “외교관계의 척도”가 되는 요소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sup>1)</sup>

중국 군사외교의 개념은 학문적, 실천적 수준에서 명확히 통일되어 규정된 바는 아직 없다. 다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군사외교의 개념은 군사협력(Military Cooperation),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s)의 용어와 혼용되면서 서구의 ‘국방외교(Defense Diplomacy)’와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sup>2)</sup> 이처럼 아직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중국은 당의 직접적인 이념적, 정책적인 통제를 통해 ‘군사외교’를 정치-군사와의 유기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 전술적 대외관계를 전략적 차원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국의 군사외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최근 이행되는 중국의 군사외교활동이 비단 국방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전략차원에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정치 지도부에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Reveron 2007). 다시 말해 중국 군사외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곧 중국 대전략의 실체를 파헤치는 지름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을 둘러싼 ‘북한문제’처리과정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었듯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결정짓는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입장’이 우리의 안보정세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리라는 희망적 사고와 기대감으로 중국의 실제 의도를 오판했던 경향이 적지 않았다. 이번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보여준 외교적 수사와 실제 행동과는 큰 오차가 있음이 더욱더 명확해졌다. 따라서 중국 스스로도 “외교관계의 척도”라고 일컫는 ‘군사외교’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대 한반도 인식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전개되는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외교의 특

1) 중국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China’s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08. 8. 25. 에서 발췌 <http://al.china-embassy.org/eng/zggk/t514667.htm>. (2010년 6월 25일 검색).

2) 군사외교(Military Diplomacy)는 냉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특히 소련 진영에 있던 국가들)과의 신뢰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국방부는 국방외교(Defense Diplomacy)를 개념적으로 정립하고 정책목표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능력에 맞는 국방계획, 보다 유용하고 신속한 군대, 효과적인 상황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합동성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대를 목표로 국방외교를 체계화 하였다(United Kingdom Ministry of Defense 1998). 2008년 이후 부터 한국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국방외교라는 개념은 바로 영국에서 체계화한 개념과 일맥상통하며, 이는 군사외교라는 용어에 비해 “전략적 측면의 강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분쟁예방 및 공동의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최영중 2009, 144).

성을 고찰하고 우리의 군사외교 전략수립에 미치는 함의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 중국의 군사외교는 지정학적 전략(Geopolitical Strategy)에 기초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국가전략의 하위 수단으로써 탈냉전기 이후 국가목표달성에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중국 군사현대화 지원, 주권수호”라는 세 가지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중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외교는 도광양晦(韜光養晦)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유리한 동북아 전략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외교를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소를 억제하고, 미국을 견제하며, 남한으로부터 실리를 확보하는 등 현상유지(Status quo)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미중경쟁 구도하에서는 지속성을 보일 것이며 우리의 군사외교는 이러한 중국의 기본전략을 역이용하려는 인식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전개로써 2장에서는 우선 중국 군사외교의 기본개념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분석 시기는 탈 냉전기 이후 시기에 집중할 것이며 분석대상은 군사외교의 목표와 임무에 집중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군사외교의 기본개념과 목표가 21세기에 와서 어떠한 전략으로 현실화되고 있는지 범 세계적, 동북아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외교를 북한과 한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외교가 한국의 군사외교정책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정리할 것이다.

중국 군사외교는 관련 선행 연구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미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군사외교 관련하여 선구자적인 선행연구물로서 앨런·맥베이든(Allen & McVadon 1999)의 연구보고서와 마즈다(Matsuda 2006)의 연구가 군사외교의 개념논의에 유용하였으며,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외교관련 활동은 미국 연구소의 최근 연구논문과 간행물들을 참고하였다.

## II. 중국 군사외교(軍事外交)의 기본개념

### 1. 군사외교의 개념과 영역

중국이 사용하는 군사외교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좁은 의미에서 군사외교란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와 군사협력(Military Cooperation)으로 이해되어 진다.<sup>3)</sup> 군사외교의 책임자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치하오티엔(Chi Haotian)이 1997년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사외교를 유리한 국가안보 환경조성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간주할 때, 다극화된 세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군사교류 및 군사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3)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s)는 외국과 인원, 무기, 장비, 정보, 지식등 단순한 정보교환 활동을 말하며, 군사협력(Military Cooperation)은 협력강도의 수준과 의무 수반여부에 따라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과 군사협조(Military Entente)로 구분된다. 군사교류도 군사협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최종철 2009, 31-32)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군사교류와 군사협력’을 군사외교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Allen 1999). 또한 중국 국방에 관한 법률 65조(1997년 3월 공포)은 대외 군사관계와 관련하여 “...타 국가와 군사적 관계를 체결하고,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서 보듯이 군사외교를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s)와 군사협력(Military Cooperation)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앨런과 맥베이든(Allen/ McVadon 1999)도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군사외교를 ‘군사교류’나 ‘대외군사관계(Foreign Military Relations)’등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앨런은 오히려 ‘대외군사관계(對外軍事關係)’라는 용어에 집착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외교를 체계화된 독자적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중국의 군사외교를 국가 정치외교의 한 분야로써 기존 냉전체제하의 당 대당의 교류관계를 포함하여 국가대 국가간의 관계까지 연장된 중국의 모든 대외적 군사 활동을 포괄하여 일반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Matsuda 2006).

이와 달리 중국의 군사외교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다. 중국 군사과학원(軍事科學院)의 왕보풍(王寶豐)은 『현대국방론(現代國防論)』(1991)에서 군사외교를 군사협력과 교류보다 더 체계화되고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된 ‘국방외교(國防外交)’의 개념으로 정의했다.<sup>5)</sup> 왕보풍(1991, 356)은 ‘국방외교’를 “주권국가가 안보목적과 안보이익을 위해 타국 또는 국가집단과 진행하는 쌍무적(雙務的)이거나 다변적(多邊的)인 접촉, 연계와 관계 그리고 이와 유관한 각종 내왕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국방외교는 대외관계와 국가외교의 한 분야이며 외교와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국방정책이 대외관계상에 구현된 것이므로 현저한 군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방외교는 국가의 외교정책(外交政策), 대외경제정책(對外經濟政策), 그리고 국방정책(國防政策)의 지도하에 전개되는 종합적인 대외활동”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중국의 군사외교를 협의의 개념으로 보느냐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군사외교가 실제 구현되는 영역과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 우선, 앨런과 맥베이든(1999)은 중국의 군사외교를 체계화된 독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외교영역을 국방무관 파견, 고위급 인사 교류, 기능적 교류(작전토의, 교육훈련, 함대방문, 국제회의, 학술교류), 기술협력 및 무기판매, 군사지원프로그램, 군비통제협상, 평화유지 작전등의 7개 범주의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실천 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왕보풍(1991, 358-363)은 중국 군사외교 영역을 “적(敵), 아(我), 우방(友)의 문제를

4) 중국이 말하는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s)는 중국국방기관이 기타 국가의 국방기관과 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으로서 원래는 우방 국가 또는 동맹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을 뜻하는 용어였으나 탈냉전 이후 비동맹국가의 군대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용어로 전이되었다(Matsuda 2006).

5) 한국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에서 추구하는 군사외교와는 추구하는 목표, 수단, 방법에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최영중 2004). 왕보풍이 여기서 정의하고자 하는 ‘국방외교(國防外交)’의 개념은 영국에서 체계화한 ‘국방외교(Defense Diplomacy)’의 개념에 오히려 유사하다. 영국은 국방외교를 잠재 적국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협력을 구축하는 도구로써 동맹국 및 적대국가들과의 “전략적 접촉(strategic engagement)”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국방외교를 안보정책의 ‘우선적 수단’으로 인식하여 외무부처(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및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등 부처간의 평시 협력적 통합운용을 통해 광범위한 국가외교의 핵심수단으로 체계화하고 있다(Cottey/Forster 2004).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정치외교(國防 政治外交), 군사무역을 중점으로 하는 국방경제외교(國防經濟外交), 국방 발전을 촉진시키는 국방과학기술(國防科學技術) 외교, 국가안보를 보위하는 것을 착안점으로 하여 건립하는 국방전략(國防戰略)외교,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무장역량간의 직접적 연계(直接的 連繫)”등 크게 정치, 경제, 과학기술, 안보전략, 상호유대 분야의 5개 영역으로 체계화 하여 구분하였다.

이처럼 군사외교의 영역에 대한 구분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범주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중국 군사외교의 활동영역이 단순한 군사교류와 군사협력의 영역에 한정되기 보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하위 전략요소들까지도 통합하는 광의의 군사외교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군사외교의 활동 범위도 서구에서 통용되는 “군사외교의 4대 활동 영역(동맹외교, 무기이전, 분쟁해결, 군비통제)”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광의의 군사외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최종철 2009). 즉,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외교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국가안보 및 군사 외교적 활동에 관련된 모든 외교활동을 뜻하며, 일반적인 외교 전략을 유도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이점을 획득하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군사적 의미를 가진 외교로 이해해야 실제의 모습에 더 부합하다 하겠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RC 2009).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군사외교는 단순한 군사교류나 군사협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국방외교’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Sacham 2003).

그러나, 중국내에서도 군사외교에 대한 개념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화를 추구하는 것은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군사외교가 - 그것이 협의의 개념이건 광의의 의미이든- 실제 어떤 목표와 임무를 가지고 구현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 2. 군사외교의 목표와 임무

중국의 군사외교의 중요성은 비단 오늘날에 와서 강조된 것만은 아니다. 1949년 신 중국 건국 후 인민 해방군은 당의 외교정책을 충족하기 위해 줄곧 대외군사관계를 증진시켜왔다. 1950대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해방군의 현대화와 중국의 방위산업을 현대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중국은 북한에 무기 및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아시아지역의 공산혁명운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대외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Allen 1999).

1970년대 들어 대외군사협력의 범위와 방침은 상업적 무기판매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소련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1970년대 말 서유럽국가와 미국과의 군사접촉을 발전시켰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과 때를 같이 하여 중국은 해방군의 현대화를 위해 서구와의 군사관계를 급속히 발전시켜 나갔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1980년대에 급진전되어 1989년 천안문사태 이전까지 미국의 대 중국 무기판매(FMS)는 절정을 이루었다(Allen 1999).

탈 냉전기부터는 인민해방군의 군사외교에서 이념적 잣대가 무너지고 현실정치(Realpolitik)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개혁정치와 더불어 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경제적 “근대화화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동북아 인접국가들의 군사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1995년 대만해협 분쟁 이후 불거진 “중국 위협론”은 중국의 이러한 국가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군사외교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대외관계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국심리’(Great power mentality)의 패러다임으로 대외정책 성향이 전환되면서 국제적 책임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Medeiros 2003, 32).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새로운 개념의 군사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탈 냉전기의 시대적 상황과 국력의 신장에 부응한 중국의 군사외교는 세 가지의 목표에 주안을 두고 추진되었다(중국의 국방, 1998).

첫째,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安保環境 造成)이다. 중국은 군사외교를 통해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위치를 쟁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의 국제환경을 “모순(矛盾)이 다양해지고, 역량(力量)이 다원화되어 간다”고 규정하면서 ‘국방외교’를 통해 국제적인 군사전략(軍事戰略)정세, 군사경제(軍事經濟)정세, 군사과학기술(軍事科學技術)정세, 전쟁(戰爭)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그리고 국제와 주변국관계를 유리한 요소로 바꾸도록 하려고 한다(왕보퐁 1991, 356). 이를 위해 중국의 군사외교는 전통적 국가외교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세계 국가들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최우선 관리대상은 인접 국가들로서 국경의 평화 없이는 경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과 광범위한 관계개선을 추구해야만 했다. 중국이 1949년 이후 겪었던 일련의 전쟁(1950한국전쟁, 1958대만해협위기, 1962중인국경분쟁, 1969중소국경분쟁, 1979중월전쟁)이 모두 인접 국가들과의 분쟁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범주는 서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국가들과 같은 개도국으로써 이들 국가와 군사외교를 통해 우호증진은 물론이며 군사무역과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유럽 및 미국 등 서구와의 관계를 통해 현대군사기술 획득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주권수호(主權守護)와 중국 위협론의 불식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남지나 해 영유권,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과 갈등, 통킹만의 비무장에 대한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긴장,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과 같은 주권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왔다.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외교를 통해 안보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수집하여 파악하고, 필요시 ‘국방외교투쟁(國防外交鬭爭)’을 통해 적의 음모를 폭로하고 자국의 입장을 선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왕보퐁 1991, 357).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역으로 주변국은 중국군 현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외교를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는 외교적 수단으로 확장하고, 역으로 일본을 아시아에서의 잠재적 위협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북아 군사외교에서 중국군이 봉착한 가장 큰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근대화를 위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진 반면 다른 한편으로 양안관계에서의 군사력을 운용하여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상위목표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데에 있다(Allen 1999).

셋째, 인민해방군의 현대화(現代化) 추진이다. 안보환경 조성 및 주권수호와 더불어 중국군의 현대화도 군사외교의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외국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의 경험을 흡수하

기 위해 전쟁경험과 국방건설의 경험을 파악하여 자국의 국방건설에 참고하려고 한다. 또한 외국군대의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의 국방건설과 무장역량 건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70년대 말 등소평의 개방정책과 더불어 무관부를 개설하여 비공산권국가들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현대전장의 기술적·교리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1979년 중월전쟁의 비참한 결과를 체험하고서 1980년대에 군사개혁을 추진하였고 군사외교도 군사 현대화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 중-러시아 군사관계의 핵심은 바로 러시아 현대식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을 구매하는데 있다(Allen 1999).

이 밖에도 중국은 군사외교를 통해 군사무역을 추진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는 부차적인 목표도 아울러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무기장비의 수출을 통해 자국의 군수산업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선진무기체계의 도입을 통해 국방현대화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국의 군사외교는 “국가외교의 하위개념으로서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군사적 대외활동”이라는 군사외교의 일반적인 정의에 부합된 중국특색의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고 있다(최종철 1999, 9).

### III. 탈 냉전기 중국 군사외교 수행전략

#### 1. 세계 전략: 지정학적 전략(Geopolitical Strategy)

2000년대 중반이후에도 중국의 군사외교는 안보환경 조성(安保環境 造成), 주권수호(主權守護), 인민해방군의 현대화(現代化)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외교 수행전략을 일본 방위연구소의 마쓰다(Matsuda 2006)는 지정학적 전략(Geopolitical Strategy)에 기초한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전통적인 공산주의 혁명전략의 틀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을 “적대세력, 동맹세력, 중립세력”으로 구분하여, 적대세력에 ‘투쟁’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고 중립세력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을 이익의 양익에 배치하여 중립국가를 포용하거나, 그들이 미국에 너무 근접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군사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우호증진을 강조하여 안전하게 느끼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활동은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활발한 군사외교에서 드러난다.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특히 미국에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군사적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점차 감소시키려고 한다(Chin-Hao 2005).

이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군사외교는 우선 적대세력에 대해서 분쟁을 최대한 회피하고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9년 10월초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게이츠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계발전을 위해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분야, 군 의료분야, 군 문화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교류 강화등 7개 분야의 협력에 합의했다. 부주석의 방미(訪美)와 관련하여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란 단단한 얼음을 깨지는 못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미국 역시 신중한 태도를 갖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쟁회피 전략은 비단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일본이나 인도와 같이 미래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 세력에게도 적용이 된다. 2009년 11월 중국 국방부장은 일본과 사상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상호간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외교정책으로 선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군사외교가 중국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양국역사문제, 대만문제, 티벳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관철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군사외교는 동맹국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중시한다. 특히 러시아와 같은 군사 선진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을 억제하기위한 공동의 이익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다면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에서 2004년간 양국의 총참모부는 전략대화를 통해 국제적, 지역적 상호이익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여덟 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에는 양국정상의 회담이후 연합훈련을 실시하였고 특히 태평양지역의 미군을 위협할 수 있는 해공군 무기 체계를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 등 무기이전관계에 있어 매우 긴밀함을 보였다(Matsuda 2006).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2009년 11월 23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방부장관과 회담하면서 양국간 군사협력강화를 추진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러시아 방문당시 과학기술 위원회 주임등 장비관련 고위간부를 대동했다”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군사기술의 중국이전을 막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첨단 기술도입을 타진했다는 성과를 열거하였다(연합뉴스 2009. 11. 23).

마지막으로, 중국은 군사외교를 통해 중립국가들을 자국의 안보에 우호적인 요소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의도가 가장 여실히 표출되는 것이 바로 유리한 지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다. 유사시 해외의 전략적 거점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선정된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 군사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인접국가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같은 국가와도 군사외교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 된다. 또한, 중국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구축하여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다자주의적, 양자적 접근의 형식을 통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다자주의를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중국은 ARF와 SCO발전에 노력의 주안을 두는등 다자주의에 대한 이득을 최대한 발견하는 지역에 대해 군사외교 전략을 가동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도 병행된다. 이러한 특성은 2009년 11월 중국의 국방부대변인 황슈에핑(Huang Xueping)이 밝힌 현재 중국의 군사외교의 4 가지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예를 들어 정보해제를 위한 중국 국방부의 공식홈페이지를 2009년 8월부터 운

6) 2009년 전방위 대외군사관계 증진과 실용적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군사외교가 큰 진척을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첫 번째 적극적인 고위급 인적교류와 군사외교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연합군사훈련의 강화로써 중국군의 대외군사훈련은 총 7회 실시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다자군사외교활동으로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에서 평화협력을 위한 중국군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특히 여러 국가들의 군수녀부를 초청하여 국제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증진시켰다. 네 번째 특징은 비 전통적 안보분야로 군사협력 분야를 확대했다는 데 있으며 소말리아 해안의 호송임무수행, 아덴만의 해군호송 활동이 있다. <http://www.defro.com/news/details/11416/> (검색일:2009. 6. 25)

영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개방은 신뢰의 문제와 직결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군사기술과 장비의 과시와 관련하여 2009년은 중국이 대국으로써의 군사외교를 과시할 ‘원년’으로 삼았다.<sup>7)</sup> 따라서 중국의 군사외교는 대국(Big Country)의 군사외교 형태를 취할 것이며, 중국이 장차 다른 국가와 상호신뢰를 위한 투명한 군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sup>8)</sup> 최근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은 중국과 심각한 안보현안 관계가 없는 지리적으로 이격된 유럽선진 국가들로서 이들 군사선진 국가들과 협력관계 구축함으로써 군사 현대화를 증진하려고 한다.

## 2. 동북아 전략: 현상유지(Status quo)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 체제까지 중국의 대외정책 중점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정책보다는 국제기구와 레짐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적인 ‘강한 중국’ 건설을 선호하여 왔다. 왜냐하면, 협력과 조화를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의 패권추구 정책을 통한 미중대결 구도를 양산하는 것보다 장래 중국의 변영과 발전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화를 통한 부강한 국가건설이라는 국가목표에 따라 다극화 전략을 통해 패권을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장공자 2002, 56).

즉, 평화와 발전을 통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패권주의적 행태(Hegemonic Behavior)’를 불용하지만 ‘패권세력(Hegemonic Power)’은 인정하는 유연함을 보이면서 단극주의 세계에서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9)</sup> 따라서, 중국의 탈 냉전기 국가전략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안정을 통한 부강한 사회건설, 국가주권과 영토에 대한 외부위협 방어, 강국으로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Swaine 2000).

이러한 차원에서 탈냉전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김태호 1997, 86-87). 이러한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잠재적 위협이 되는 미국과의 ‘결전’을 회피하고, 장기적 차원의 충돌을 대비하는 도광양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외교는 바로 이러한 국가전략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발전되어 왔다. 중국은 지정학적 전략에 기초하여 대한반도 군사외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분쟁회피(미국/일본), 불안정 억제(북한), 인접국가 활용(한국). 첫째, 중국은 미중대결의 잠재적 적대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하도형 2006). 한반도는 중국에게 있어 존재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 결합이 될 때 큰 정치적 의

7) <http://www.defpro.com/news/details/11800/>. (2010년 6월 25일 검색).

8) <http://www.defpro.com/news/details/11800/>. (2010년 6월 25일 검색).

9) 이에 대해 Evan S. Medeiros(2003, 2009)는 지난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우위를 통한 역내 안정유지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오히려 도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미를 가진다는 특성을 역사적으로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등장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견제를 회피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저지하려는 구상을 가져왔다(온대원 2001, 33). 특히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세개입 배제원칙을 고수하고, 북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한국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유도함으로써 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위해되는 요소를 북한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요소는 중국에게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변수이다. 언제라도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하고 이에 따른 난민문제 등을 우려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동맹세력으로 기능한다. 북한은 중국과 한미동맹간의 지정학적 완충지대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존재만으로도 대만통일을 위해 동북지역의 군비를 절약하여 유사시 남부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융통성을 제공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대외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여 대만문제해결과 국가위상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즉 북한이라는 동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역내 미군의 군사패권에 대항하는 거대한 군사적 요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내부폭발’(Implosion)은 억제하되 북한체제만은 존속시켜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더욱 문제시되는 점은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Bajoria 2009). 따라서 현 상황에서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항은 북한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 한다기보다는 한반도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함께 북중관계의 평화적 ‘관리’에 주안이 있다고 볼 수 있다(Bajoria 2009).

셋째, 중국은 미국에 기울어진 한국의 대외정책을 ‘균형자적 전략(Balancing Strategy)’으로 중립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Su 2009).<sup>10)</sup>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중 상호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정치외교차원의 상호 안정 그리고 미일에 대한 중간지대 확보에 열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전략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중국 군사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지도부가 중국 군사외교관계를 전략적 수준의 활동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신중국 건국이후 일관된 정치-군사의 유기적인 관계설정을 바탕으로, 당-국가지도부가 설정한 외교, 정치, 경제, 안보적 문제를 지원하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Gunnes 2006, 1-8). 따라서 해방군 지도부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 지휘부는 해방군의 해외 군사 활동을 순전히 군사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 지휘부의 임무로 인식하기보다 전략적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정치적 사업으로 이해한다(Finkelstein 1999). 더욱이 중국은 개방적인 민주정치국가보다도 더 일관성 있게 외교정책을 발전시키고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의 응집력 있는 정치지휘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작은 전술적 수준의 장점도 최상의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

10) 중국 외교대학원의 수하오(Su Hao)교수는 2009년 9월 1일 한국국방대 초청으로 한국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주제 발표시 중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 안보 정책방향을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곧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균형자적 입장과 중립적 자세를 강조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방어(Defense), 억제(Deterrence), 강압(Coercion), 과시(Swaggering) 등과 같이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힘(Power)의 운용’이라는 군사력의 대외적 역할에 중점이 놓인 군사적 수단을 국가전략 수준으로 격상시켜 평시 국가안보의 ‘위협과 취약성’을 줄여나가는 국가 외교 활동의 핵심도구로 운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김열수 2010, 105-118). 이렇듯 고도의 정치적 사업으로 인식되는 중국의 군사외교가 극명하게 가시화되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다.

## IV. 대한반도 군사외교의 특징

### 1. 중국의 대북(對北) 군사외교: 불안정 억제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순망치한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1년 조중 우호협정 체결시 ‘자동참전’ 조항을 포함시켜 양국간의 군사적 혈맹관계를 과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공약은 1994년 미국의 북한공격이 가시화 되었을 때 실제 가동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7).<sup>11)</sup>

중북군사관계는 1961년 군사동맹관계가 성립된 이후 1980년대 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 지휘부가 중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강력한 동맹관계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래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와 북한 국방위원회 사이의 접촉은 중국측에서 김정일에게 안보관련 긴급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국의 일방적인 접촉통로로 평가되고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6). 이처럼 군사동맹의 결속력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주요 중국 고위직의 퇴진과 함께 어느 정도 희석된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중국군의 군사자료를 보면 중앙군사 위원회 정치국의 북한담당자인 수차이허오우(Xu Caihou)가 집안과 심양군구에서 복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미국, 남한은 수차례나 방문하였는데 반해 2003년도 한 해 동안 단 차례만 북한을 방문했을 뿐이다. 또한 심양군구사령관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남한은 방문하였으나 북한은 방문하지 않았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7).

이처럼 2000년 초중반의 소원한 군사적 교류를 볼 때 군사적 차원의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그다지 공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6). 이러한 것은 우선 북한이 근본적으로 중국의 현실정치(Realpolitik)에 입각한 대미·대한국과의 ‘우호협력’정책에 대해서 중국을 불신하고 있으며 북한만의 특수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중국에 항의하고 이것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4).

11) 다시 말해 만약 미국이 명확한 증거나 정당성 없이 북한을 공격했을 경우 중국은 북한의 전쟁에 대비하여 탄약과 무기를 지원할 태세가 되어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중북관계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북핵문제에서였다. 2009년 5월의 핵실험이후 중국은 국제적 책임을 가진 강대국으로써의 위신과 역사적 동맹으로써의 북한사이에서 큰 긴장이 형성되었다(Snyder/Byun 2009). 이때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비핵화 노선’과 ‘중북동맹 유지노선’간의 정책논쟁이 있었으며 국제적 상황과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후자를 결정했다는 후문이 있었다(연합뉴스 2009. 11. 24). 그럼에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 하는 등 양국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기도 했다(LA Times 2009. 05. 27). 이에 김정일은 중국에게 “중국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통제권에서 행동하지 않음을 암시함으로써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Bajoria 2009).<sup>12)</sup>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미묘한 관계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지원을 단절할 수 없었다. 지원과 접촉을 상실하게 될시 감수해야할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요소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급변사태와 붕괴방지 그리고 이로 인한 대량난민의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자국의 불안정과 동요를 막는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이를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하면 인접국가의 핵무장 세력등장의 방지, 분쟁의 방지, 지역 질서의 현상(status quo)유지에 주안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비교적 소원한 중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군사장비 판매에는 합의하여 2004년 군용트럭과 해군장비등 약 1000만 불치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접촉을 전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17). 또한, 유엔 결의안 1718의 이행을 사치품목에 한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교역활동은 오히려 증가하여 2008년 현재 20조 7천 9백만 불치에 해당되며 2007년에 비해 41.3% 증가하였다(Bajoria 2009). 2009년 미 하원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 결의안 1874의 경제적 효과는 중국이 협조적으로 동참하지 않을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중국이 북한의 체제생존에 목을 매어야 하는 이유가 그 만큼 많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중북관계의 양면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북 외교관계수립(1949. 10. 6) 60돌을 맞아 2009년 10월 이후 북중관계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군사분야의 밀착이 각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2천만 달러의 무상 원조 외에 북중간 경

12) 스티imson 센터(Stimson Center)의 롬버그(Alan Romberg)는 “평양은 중국의 눈앞에서 침을 뱉었다”라고 표현하였으며, 해군대학의 폴락(Jonathan D. Pollack) 교수는 2006의 핵실험을 중북간의 “빠격거림(Jarring)”이라고 하였고, 핑크스톤(Daniel Pinkston)은 이로써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13) 국제위기연구소(International Crisis Group)는 중국의 역사적,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대 한반도 정책의 주안점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반도에서의 분쟁이나 급변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피, 통일한국에서 미국의 주도권 획득 방지, 북한을 중국의 발전계획에 통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의 동북지역의 안정화, 원조를 무역 및 투자형식으로 대체하여 양자관계의 재정적 부담 감소, 북한 비핵화 달성에 참여하여 동북아 및 미국에서 신뢰획득, 남한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대만문제에 대해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한반도의 현 상태(status quo) 유지, 북한 핵문제가 일본 및 대만의 핵무장을 자극하는 상황 방지.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610.pdf>. (2010년 6월 25일 검색).

제교류 협력은 정치적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를 시현하여,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 존도는 2003년 42.8%에서 2008년에는 73%에 이르고 있다.<sup>14)</sup> 2009년 11월 22일 북한을 방문한 양광열(梁光烈) 국방부장은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회담을 갖고 중북동맹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원칙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2009년 11월 17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인 군 총정치국 김정각 제 1부국장이 북경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으로써 2006년 4월 방북이후 3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날 북한은 “중북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의 풍파를 함께 이겨낸 북중 친선을 변함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의 쉬차이허우 부주석은 “중국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나라와 군대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좀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한국일보 2009. 11. 23).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를 새삼 강조하는 데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중국을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과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써 행세하기 위한 전략이 맞물려서 성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을 높이고 안보리 결의안에 참석한 후 다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치군사적인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중국이 6자회담에서 대북관계에서 과시를 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sup>15)</sup>

또한 중국이 지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차기 후계구도에 미칠 영향력과 급변사태를 비롯한 북한의 내정불안정에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차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그룹이 군부라고 판단하여 정권의 전환과정 속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고 대화통로를 구축하려고 한다.<sup>16)</sup> 다른 한편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시 군부세력이 힘을 발휘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양국 군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을 우려한 것 같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2008년 말부터 기본적인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이 있었고 2009년 들어 본격화 되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sup>17)</sup> 다시 말해, 중국은 북한의 불안한 후계구도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북한의 장래처리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북한과의 군 인맥 확대를 통해 중북동맹을 한층 강화하여, 북한의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2. 중국의 대한(對韓) 군사외교: 미국견제

군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적대적 관계로 전쟁을 수행한 국가로써 1992년 수교이전까지 이념적, 군사적 적대 국가로써 국가대 국가의 교류가 원칙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1980년대 까지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기본 입장은 미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14) [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9685](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9685). (2010년 6월 25일 검색).

15) [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 (2010년 6월 25일 검색).

16) [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 (2010년 6월 25일 검색).

17)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w20091124161400n4816](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w20091124161400n4816). (2010년 6월 25일 검색).

재생된 형태로 인식 되었으며, 한국전쟁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중국의 대외군사 활동은 우리에게 ‘외교’로써가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제질서의 기본 패러다임이 이념에서 ‘실리’추구의 현실정치로 재편되면서 1992년 한중간 공식수교가 이루어졌다.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주중 한국무관부와 주한 중국무관부가 설치되었다. 1999년 까지 한국측에서는 국방장관을 포함한 당국자의 중국방문이 수차례 성사되었으며, 2000년에 중국 국방장관의 방한이 이루어지면서 수교 8년 만에 국방 분야 최고위급 수준의 상호방문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방문의 이면에 어린 중국의 우려 섞인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이라는 요소로 인한 중국의 행동에 대한 제약 때문이다. 단적으로 1997년 한중 국방정책 회담시 중국 국방부 외사관공실(Foreign Affairs Bureau Director) 루오빈(Luo Bin)주임은 “한중군사관계에 있어 한국은 적극적인 반면에 중국측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중 군사교류관계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민진 외 2007, 197-198).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주요인사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해군함정의 상호방문(2001년)과 공군수송기의 최초방중(2002년)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사교육영역에서는 2000년 5월 중국 국방대학 학생의 최초방한이 시작되었고, 2002년 한국 공군참모총장의 방중을 비롯한 각군 총장의 방중이 완결되었다(김광진 2003, 200). 또한, 2002년 10월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하였고, 2006년부터는 정례화 되어 시행되면서, 단순한 군사부문의 교류에서 외교안보문제를 아우르는 수준으로 범위가 외연으로 확장되었다.

2007년 4월에는 양국간 군사 핫라인 설치가 합의되었고, 특히 2008년 5월 양국 정상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면서, 종전에 제한적인 국가간 협력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확장하였다(이창형 2008, 1-2). 이러한 결과 2008년 현재까지 한중간 이루어진 군사교류 및 협력분야의 실적을 보면 특히 2000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과 현황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군 고위급 인사교류는 한국측은 장관급을 비롯한 차관, 각군 총장급 방문이 총 16회, 중국측은 총 8회 방문이 이루어졌다(국방부 대외정책과 2008). 군 실무급 교류는 활발하지 않으나, 한중간 국방정책 실무회의와 정보교류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국방정책에 대한 소개 및 증진 방안을 교환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외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협의를 군사외교’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중국의 대한민국 군사교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정례화된 회의체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양국군간의 실질적인 군사훈련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 및 연구기관 및 체육교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적 교류는 전무한 실정이다. 군사교류가 군사협력 수준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대 한국 군사외교의 목적이 한국과의 관계 정립 그 자체 보다는 한국을 통한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위협론에 대한 불식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8년 중국 국방백서는 아태지역의 안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적 배치를 조정하며 지역내 군사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관심을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RC 2008, 5).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교류는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과의 관계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에 군사외교의 영역과 범위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3. 평가와 전망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외교는 한반도 문제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목표로, 대미, 대한민국, 대북한 관계를 전개해 나간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한반도 군사외교를 전개함에 있어 ‘중미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 해왔다. “Pax Americana와 Pax Sinica라는 경제문화의 양 제국이 서로 경쟁관계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접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동북 3성과 한반도”<sup>18)</sup>라는 인식은 비단 미국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중국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이미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유지될 때 중국의 이익이 최적화 된다는 생각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곧 그들에게 있어 미국과의 충돌을 앞당기고 불가피하게 만드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북한과 한국에 대한 군사외교 전략은 신중한 이중적 접근법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북 군사외교는 2009년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61년 체결된 중조 우호조약을 유지하여 유사시 북한개입에 대한 법적 명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의 군사교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접촉을 유지하여 장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키고 정세불안정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권유지와 체제생존을 갈구하는 북한으로써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자의반 타의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에게 의존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주요 광산 채굴권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고, 서해의 유전탐사도 중국이 주도한다고 전해진다.<sup>19)</sup> 중국도 북한의 체제생존이 “전략적 완충지대 확보”라는 국가이익에 절실한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와 적극적인 개방이 동북지방의 불안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군사외교를 통해 중북 군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대한민국 군사외교는 근본적으로 중미관계의 구도가 생성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미 군사외교의 활동범위가 근원적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란, 수단, 베네수엘라와 같은 미국의 적대 국가들과도 군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시키려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Washington Times 2009. 06. 23). 2009년 미 의회 연례보

18) 주용식 한미연구소 부소장(John Hopkins University), “2009 북한인권 국제회의 세미나”, [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40&bbs\\_number=77](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40&bbs_number=77). (2010년 6월 25일 검색).

19) [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_](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_). (2010년 6월 25일 검색).

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2009)에서는 중국의 신속한 군사력 증강이 아시아와 세계지역의 군사균형을 깨트리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군사비와 장비현대화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대만 해협에서 양안 긴장관계가 완화되었음에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위협적인 무기를 확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군사력은 대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8). 이처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한민국 군사외교는 철저히 통일전선전술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각종 군사교류와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한미연합군에 대한 적정과약, 정보획득 그리고 취약점을 분석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외교는 ‘강한 중국’ 건설을 위한 ‘도광양회’를 추구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분단상태 유지를 고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며, 남한을 중립화하는데 최종 목표가 놓여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목표를 성취하기에 중국의 군사외교가 직면한 한계점도 있다. 우선 북한의 경우 중국의 군사적 지원(기술이전, 무기장비)은 받아들일 용의를 표명하지만 중국이 군사외교를 통해 정작 달성하고자 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다른 한편 남한의 경우에는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광의의 군사외교는 실천하기 어려운데다 미국을 견제한 정보수집과 정세과약등의 군사외교활동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군사외교활동을 통한 질적 성취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군사(軍事)’라는 사안이 가지는 고도의 민감성으로 인해 군사외교가 태생적으로 가지는 근원적인 장애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략적으로 시사하는 점은 바로 중국 군사외교이 봉착한 한계점이 최근 중북관계와 한중관계를 규정짓는 ‘척도’가 된다는 점이다. 중국이 스스로 ‘외교관계의 척도’로 간주하는 ‘군사외교’의 양적·질적 진척도와 한계점이 오늘날 중북관계의 ‘결속력’과 중한관계의 ‘본질’을 규정짓는 잣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V. 결 론: Quo Vadis?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 종식 후 중국의 군사외교는 이념적 특성에서 벗어나 현실정치(Realpolitik)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였다. 특히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 외교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군사접촉과 군사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21세기 군사외교는 ‘전방위, 전영역, 다층차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내용도 심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확대와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외교는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주권 수호, 군사현대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 한반도 군사외교 추진시에는 ‘불안정 억제’와 ‘현상유지(Status quo)’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실리위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상유지의 근본 목적은 미국과의 마찰을 회피하고

견제하여 ‘강한 중국(Strong China)건설이라는 대전략을 달성 하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외교는 한국의 대외정책을 균형자적 전략(Balancing Strategy)으로 중립화 시켜 미국에 대한 중간지대를 확보 하는 데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군사외교가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인적 교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군사교류영역을 확대하여왔음에도 인적교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중국의 군사외교는 북한에 대해서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게 양면성을 지닌 변수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소’를 억제해야 하는 이면에 북한은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유지하는 동맹으로써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를 제공하고, 대만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자 ‘자산’이기도 하다. 중국이 비록 미국의 대만정책과 북한협력 문제의 연계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2003년 12월 후진타오 주석은 암시적으로 미국에게 ‘북한대신에 대만(Taiwan in return for North Korea)’이라는 ‘주고받기(Quid pro quo)’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 체니(Dick Cheney)의 북경방문시 이러한 점이 재차 제외되었다고 알려져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sup>20)</sup> 따라서 2009년 11월 중국 국방부장의 북한 방문의 의미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강화하여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소극적 전략에 있다고만 볼 수도 없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이러한 대한반도 군사외교는 장차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외교의 위상정립에 던지는 함의가 매우 크다. 우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외교를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돌발행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군사외교를 지렛대로 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한국이 중국의 군사외교를 통일전략의 매개체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지휘부는 군사외교를 도광양회 전략을 구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써 국가외교를 선도해 나가는 주도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군사외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한편 한국을 중립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한국이 장차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이익이 침해를 받지 않고 중국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군사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군사외교는 외교(外交)와 군사(軍事)가 서로 상반된 국가정책 수단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요소라는 전략적인 인식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시 국가안보의 ‘위협과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상호 배합하여 대전략적 차원에서 운용할 때에 비로소 포괄적 안보시대에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가 ‘우선적 수단(Prima Ratio)’이며 군사는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라는 상호 분절된 시각에서 벗어나 군사외교를 국가이익을 달성하는 유용한 전략적 수단으로 만들어 나가는 중국인의 노력과 발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다.

20) 그러나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안을 미국측이 먼저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 참 고 문 헌

- 국방부 대외정책과(2008). 『중국관련 참고자료』.
- 김열수(2010).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법문사.
- 김태호(1997). “중국의 정치군사적 성장과 향후전망”. 『현대중국』.
- 민진, 김병조, 신용도, 하도형, 이홍섭 공저(2007). 『안보연구 시리즈 제 8집 1호: 안보정책의 심화방안과 대외협력의 전개』. 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 박창희(2010). “현대 중국의 전략문화와 전쟁수행방식: 전통적 전략문화의 연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군사(軍史)』. 제 74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온대원(2001). “중국의 다극화 외교 책략과 군현대화.” 『국제문제』. 제 32권, 제 12호. 서울: 국가전략연구원.
- 장공자(2002).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한국동북아 논총』. 제 24집.
- 최영종(2004). “우리나라 군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전략연구』. 통권 제 32호.
- 최영종(2009). “군사외교의 고도화 및 다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통권 제 47호.
- 최종철(1999). 『군사외교력 분석방법: 중급국가의 안보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 최종철(2009).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국방외교의 Global화.” 『08년 국방부 정책연구 보고서』. 서울: 국방대학교.
- 하도형(2006). 『후진타오 정부의 권력공고화와 대내외정책의 변화』. 서울: 국방대학교.
- 王寶豐 편. 국방대학원 역(1991). 『現代國防論』. 중국군사과학원.
- Allen, Kenneth W./ McVadon, Eric A.(1999). *China's Foreign Military Relations*, Henry L. Stimson Center.
- Bajoria, Jayshree(2009). *The China-Northkorea Relationship*.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8(2009).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nuary, Beijing.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9).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mplic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 Cottey, Andrew/ Forster, Anthony(2004). *Reshaping Defense Diplomacy: New Roles for Military Cooperation and Assistance*. Oxford University Press for IISS.
- Gill, Bate/ Huang, Chin-hao(2007). "Assessing China's Growing Influence in Africa." *China Security*. Vol. 3.
- Gunnes, Kristen(2006). "China's Military Diplomcy in an Era of Change." CNA Corporati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ymposium*
- Huang, Chin-hao(2006). *Military Diplomacy and China's Soft Power*. CSIS.
-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6).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Asia Report*. No.112.

- Matsuda, Yasuhiro(2006). "An Essay on China's Military Diplomacy : Examination of Intentions in Foreign Strategy". *NIDS Security Studies*. Vol. 8, No.3.
- Medeiros, Evan S. / Fravel, M. Taylor(2003). *Foreign Affairs : China's New Diplomacy*.
- Medeiros, Evan S. (2009). *China's International Behavior*. RAND.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07).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Power of the PRC 2007*.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09).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Power of the PRC 2009*.
- Reveron, Derek S.(2007). "Shaping and Military Diplomacy", *2007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ugust 30-September 2. Naval War College.
- Sacharn, B. S.(2003). "Cooperation in Military Training as a Tool of Peacetime Military Diplomacy, Strategic Analysis." *A Monthly Journal of the IDSA*. Vol. XXVII, No. 3.
- Snyder, Scott/ Byun, See Won(2009). "China-Korea Relations : Pyongyang Tests Beijing's Patience", *Asia Foundation/ Pacific Forum CSIS*.
- Su, Hao(2009). *Security Struc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South Korean strategic Choice : A Chinese Perspective*. Center for Strategic and Conflict Management.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 Swaine, Michale D. & Tellis, Asheley J.(2000).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 Past, Present, and Future*. RAND.
- United Kingdom Ministry of Defense(1998). *The Strategic Defence Review*.
- 「Washington Times」 (2009. 6. 23)
-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China's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10년 6월 25일 검색).
- <http://al.china-embassy.org/eng/zggk/t514667.htm>. (2010년 6월 25일 검색).
-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610.pdf>. (2010년 6월 25일 검색).
- <http://articles.latimes.com/2009/may/27/world/fg-china-korea27>. (2010년 6월 25일 검색).
- [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9685](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9685). (2010년 6월 25일 검색).
- [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 (2010년 6월 25일 검색).
- [http://news.xinhuanet.com/english/.../content\\_611043.htm](http://news.xinhuanet.com/english/.../content_611043.htm). (2010년 6월 25일 검색).
- <http://www.defpro.com/news/details/11416/>. (2010년 6월 25일 검색).
- <http://www.defpro.com/news/details/11800/>. (2010년 6월 25일 검색).
- [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40&bbs\\_number=77](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40&bbs_number=77). (2010년 6월 25일 검색).

Abstract

## A Study on China's Military Diplomacy in the Korean Peninsula: Definition, Strategy and Features

Tae-Hyun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definition, strategy and features of China's Military Diplomacy(or Defense Diplomacy) after the Cold War focus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rovide an implication for the ROK's Military Diplomacy. Facing the situation of "Chonan warship" attack by North Korea, it became evident that China has an ultimate key role to solve the Korean Problem in a appropriate way. But it seems that South Korea failed to catch an real intention of china's Security Policy how to deal with the issue "North Korean problem". In this sense the subtle analysis on the China's Military Diplomacy could make it possible to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n a more balanced basis connected with a china's diplomatic rhetoric, and to draw a grand map how the china's national strategy looks like.

The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objectives of china's military are to shape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to protect Sovereignty issues and to enhance PLA(People's Liberation Army) modernization. Secondly, the Military Diplomacy is put into practice based on the geopolitical strategy, which can be considered as an extension of the concept of united front operations divided into struggle, cooperation and coop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hina's military diplomacy to cooperate with the North Korea, to coopt South Korea, in order to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Thirdly, the main efforts of china's military diplomacy for the korean peninsula lie in the accomplishment of 'Stability' and management of the 'Status Quo' in this Region.

■ 논문접수일 : 2010년 7월 2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8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5일

---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Strategic Studies, Kore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